



건축가 김 중 업

조형예술에 속하는 건축은 近代에 와서 급속한 발전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것은 科學과 工學이 약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例를 들면 기둥이 없는 200m 四方의 공간을 덮어 씌울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아폴로 달착륙은 달위의 건축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今後の 건축은 오로지 現在까지의 건축을 계승하는데만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의 새로운 건축을 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都市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점차로 巨大化됨에 따라 종전에 추측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문제의 해결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 人間の 욕심이 無限히 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건축의 기능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現在 어떠한 넓이의 공간이든지 air condition을 할 수 있게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좀더 comfortable하게 air condition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현대의 건축이 2000년대의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두되는 문제의 하나가 人工垆地 또는 人工空間의 문제입니다. 현재 300m 높이의 고층건물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이것은 人工垆地인 것입니다. 즉 垆地는 얼마든지 쌓아 올릴수 있는 것입니다. 垆地는 땅 덩어리만이 아니고 人間の 힘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마련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英國의 건축가 판비시는 今後の 건축은 소모품이 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人間の 嗜好가 달라지고 또 끝없이 늘어나는 人間の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게끔 科學과 技術이 進歩해 나가기 때문에 넓은 집에서 이에 맞추어 修理해 가면서 살아 보아도 不便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헐어 버리고 새로 짓는 편이 經濟的인 경

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自動車를 해마다 바꾸듯 Plastic으로 만든 空間을 人工垆地마다 filtering만 해나가는 方式의 건축을 그이는 構想하고 있다. 이것을 그는 Plugging house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電氣水道등의 必要한 Pipe와 line만이 준비된 人工垆地에 Plastic house를 連結시키기만 하면 되고 또 必要時에는 언제든지 바꿔치울수 있는 건축, 다시 말하면 소모품化할수 있는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未來의 건축은 人間の Leisure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人間の Leisure 문제를 解決하기 爲하여는 그 生活환경을 간단하게 바꿀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自己가 택하는 곳에 간단히 집을 지어서 옮겨살수 있는 意味에서도 Plugging house가 注目됩니다. 또 같은 집속에서도 生活의 單調함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집內부의 구조를 간단하게 바꿀수 있는 그런 건축이 필요합니다. 다시말하면 건축의 Variation의 문제와 Color의 문제가 심각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最近의 住宅은 그 外觀의 雄狀한 것보다는 그 内部空間이 可變的이어야 하겠다는 문제가 重要視되고 있습니다.

每日 똑같은 空間에서 똑같은 物體사이에서 산다는 것은 참을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간단히 집안의 환경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今後の 건축은 기둥만이 固定的이고 담은 可動的이어야 합니다. 荷重이 걸리는 기둥 사이는 될수록 넓게 잡고 담은 可動的인 材料를 써서 必要할때는 간단히 넓힐수도 있고 좁힐수도 있는 그런 건축이 요구됩니다.

今日의 건축가들은 第二次大戦이전의 건축지식은 Data에 不過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過去

의 傳統이러든가 또는 누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21세기의 건축을 위하여는 間接的인 價値밖에 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現代의 건축에는 21세기 건축을 위하여 過去에 구애됨이 없이 各自가 自己의 Idea를 과감하게 제안하고 연구하는 多彩로운 時代를 마치고 있습니다. 其一例가 Net City의 문제인데 現存하는 大都市는 不遠間 그 以上 改造할수도 없는 地境에 도달할터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全部 헐어버리고 그 위에 다시 질수도 없는 문제이니 만큼 既存 都市 上空에 기둥을 높이 올려서 만든 人工地에 앞에 말한 Plugging house를 세울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구상의 人口가 2,000년대에는 現在의 倍인 70億으로 늘어 날 것이므로 그 對策으로 地下都市 또는 海上都市문제도 아울러 연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나라의 上空 全部를 Plastic으로 덮어놓고 그안 全體를 마음대로 air Condition하여 農作物의 3~5모작을 할뿐만 아니라 風水

害도 방지할 수 있는 연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12층 건물을 6시간에 組立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또 1층건물은 2시간 20분이면 조립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가장 뒤 떨어져 있고 또 질실한 문제의 하나를 밀썬 드리자면 그것은 건축자재의 규격화 문제입니다. 數年前부터 우리나라도 Meter制가 실시되고 있지만 木材를 비롯하여 건축자재의 大部分이 Meter制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莫大한 量의 건축자재가 소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가 건축에 관한 세계 대세에 순응하여 발달해 나가는 데도 큰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短時間 組立문제만 하더라도 건축자재의 규격화와 표준화가 先行되어야만 實現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면에서 기반을 닦아 나가면서 外國에서 연구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面을 흡수 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25에서>

직경이 약 10cm로 오목하게 만든 곳에 암놈이 産卵하면 그위를 숫놈이 지체없이 精液을 뿌려줍니다. 그 다음은 암놈이 다시 모래로 이를 덮어서 보호하게 됩니다.

이런 산란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번 계속하는 동안에 암놈은 體內的 알 全部를 排出하고 숫놈은 精液을 全部소모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皮骨이 相接하게된 은어는 그 이상 生命을 유지할 길이 없어 죽고 마는데 그 시체는 바다로 떠내려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어의 생명은 一年뿐인 것으로써 一名 年魚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모래속에 묻혀 있는 受精卵은 약 40日後에는 孵化되어 水流에 따라 江口에 약간 염분이 있는 곳에 定着하여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에 다시 江의 上流로 올라가는 生活를 되풀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은어의 가장 좋은 번식지는 以北의 청천강이고 다음은 밀양의 낙동강과 섬진江의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淸川江의 은어는 一年에 越尺이 되도록 자랍니다. 長魚는 역시 溪水魚이지 마는 産卵地는 深海임이 알려졌습니다.

深海에서 부화된 稚魚는 白色의 갈잎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暖流를 따라 陸地에 접근할 무렵에 長魚모양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장어의 양식은 이런 돌변한 稚魚를 잡아서 기르는 것이므로 完全한 양식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묘한 生殖方法을 하고 있는 놈이 꽃게입니다. 꽃게는 숫놈이 아직 未成年인 암놈의 脫皮直前に 이에 射精을 하면 암놈은 그것을 體內에 저장해 두었다가 産卵을 精液이 들어있는 주머니속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自然受精이 되는 것입니다. 숫놈의 射精時期는 다음인데 다음 봄철에 가서 암놈이 成年이 되어 産卵하게 되는 이런 묘한 번식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魚類의 生活史 연구는 단시일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한 種類에 대해서 수 10년을 꾸준히 계속하므로써 成功할수 있는 것임을 연구자나 政府當局이 留意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우리 물고기의 生活史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育成되기를 바랍니다. ■

(서울 국제 싸이언스클럽 월례회에서)